

협치 사례 완벽 이해

협치의 해법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편

민관협치로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요

1단계 **툘아보기**

2단계 **확인해봅시다**

3단계 **생각해봅시다**

협치 해법 스페셜

방학천 협치 사례 총정리

민관 협력의 기본기를 다져서
협치 만점으로 가자!

>>우리지역 협치 실습예제 수록



협치 사례 완벽 이해

협치의 해법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편

협치사례 완벽이해 『협치의 해법』 - 방학천 예술거리편

발행인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발행	2020년 11월
발행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디자인	청년협동조합 몽땅
도움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이은주 로컬+협치연구소 대표 심소영 동대문구 민민협력 컨소시엄 운영단체 대표 홍수만 전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이 책의 구성

미리보기

방학천 사례의 요약본으로
사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돌아보기

협치의 단계별 질문을 통해
방학천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사례에 대해 협치 전문가들의
세심한 자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Key Point

협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을 꼭 짚어줍니다.

확인해봅시다

방학천의 사례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협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방학천 사례를 우리 지역의 문제 및 사례와
비교하고 더 나은 협치 활동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봅시다.

학습을 시작하며

서울시는 복잡다단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환경, 에너지, 청년, 복지, 성평등 등등 여러 혁신정책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협치 시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한 많은 정책 과정 중 이야깃거리와 생각거리가 많은 사례를 골라 재미있는 학습서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력의 시작/과정/결과의 흐름으로 협치 사례가 남긴 발자국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소통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그 과정에 담긴 협치의 의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치 당사자

오늘의 학습 목표

- ① 방학천 문화 예술 거리 사례를 통해 자치구 단위 협치 진행 과정을 이해한다.
- ② 협치의 사례를 3단계 과정으로 이해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 ③ 내가 진행하고 있는 협치 사례를 함께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협치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목차

미리보기

협력의 시작

공감하기

방학천 문제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요?

준비하기

방학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준비가 되었나요?

협력의 과정

함께 일하기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나요?

함께 결정하기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였나요?

함께 이룬 작은 결실

협력의 동기부여가 될
과정에서의 작은 성과가 있나요?

협력의 결과

함께 만든 변화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좋은 점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나요?

아쉬운 점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나요?

미리보기

방학천문화예술거리는?

도봉구에 위치한 방학천은 그 일대에 밀집된 유해업소들이 수년간 영업을 이어오면서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청소년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활동의 축적으로 방학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고 마을공동체와 혁신사업을 통해 등장한 주민 주체들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도봉구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면서 협치기반을 마련하였고 2017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이 협치의제로 선정되면서 민관협의체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제 해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관협의체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이 구성되기 전 각 행정부서들은 방학천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어오면서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러한 각 부서의 필요가 협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지속가능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라는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의 초기 과정에 세 곳의 유흥업소 자진 폐업, 비전에 공감한 첫 카페 오픈, 방학천 첫 거리 행사에 지역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어 이후 협력을 촉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학천 거리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었고 새로운 주체 유입으로 매력적인 상점이 생겨났습니다. 축제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갖춰지면서 거리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최근 입주작가와 상인들로 구성된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QR코드로 미리보기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례가 더 궁금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자세한 사례 분석
보고서와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영상

2016

- 4월 유흥чат집 단속 시작
- 10월 4일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할’ 개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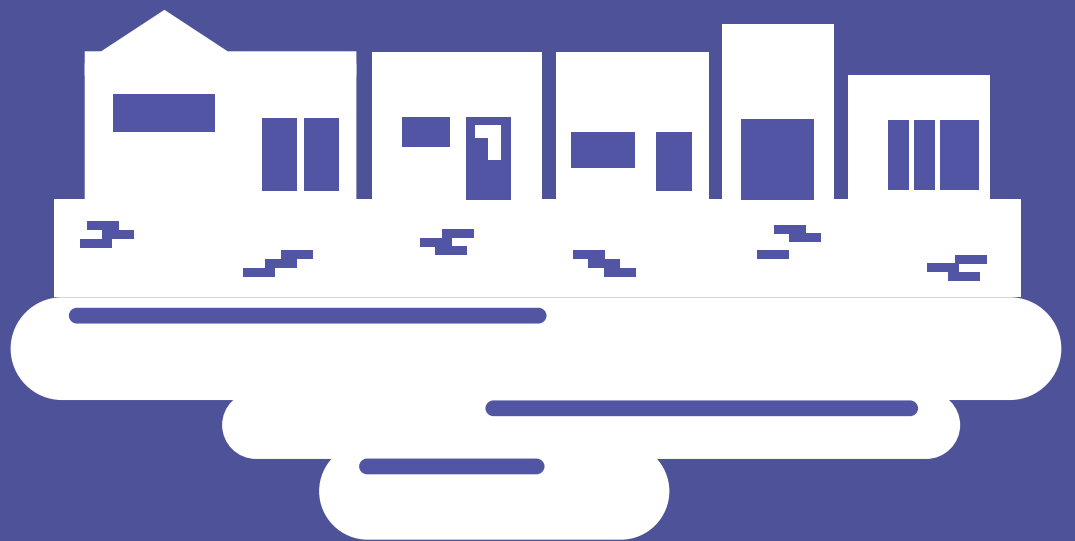
- 2월 9일 방학천 문화거리 만들기 주민설명회 개최
- 4월 13일 구청장 주제 의제 관련 부서장 회의
- 4월 13-24일 민관파트너 실무협의
- 4월 25일 방학천 민관파트너 간담회, 방학천 의제 공유 및 논의
- 4월 협치도봉구회의에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협치 의제로 승인
- 5월 방학천문화예술거리 민관 ‘워킹그룹’과 ‘포럼’ 구성 및 운영 (~2018년 11월 27일)
- 5월 17일 1차 회의, 의장 선출, 거리 조성 입주 작가 아이템 등 논의
- 8월 4일 2차 회의, 사업 추진 사항 공유 협의 및 포럼 구성 논의
- 8월 10일 3차 회의, 사업 추진 사항 공유 협의 및 포럼 개최 일정 논의
- 8월 23-25일 방학생할 주민모임, 방학생할 빈대떡데이 등 주민 프로그램 운영
- 9월 7일 1차 포럼, 사업 계획 공유 및 거리조성에 대한 의견수렴
- 9월 20일 방학천 입주작가 간담회, 입주작가 의견수렴, 협치 예산 내용 공유
- 9월 27일 4차 회의, 방학천 벽화 관련 협의
- 10월 17일 5차 회의, 거리변화 성공사례 현장 탐방 (동두천 디자인아트빌리지 탐방)
- 11월 1일 2차 포럼, 민관협치 생태계 조성 사례 현장 탐방 (성수동 소셜벤처벨리 현장 탐방)
- 12월 28일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8

- 2월 6일 입주작가회의,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입주작가 자치회 구성, 사업 진행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 4월 2일 3차 포럼, 포럼 구성 변동사항 및 비전 공유, 민간중심의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공간, 인력 발굴
- 4월 13일 방예리 개장식, 상생협약 체결식
- 8월 25일 프리마켓 개최,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운영위원회 주관 프리마켓 개최
- 10월 13일 마실축제 개최, 방학천 예술거리 운영위원회 주관 미리 할로윈 파티 개최
- 11월 9일 4차 포럼, 포럼 추진 경과 공유 및 포럼 맺음 워크숍 논의
- 11월 27일 맺음워크숍 방학천 거리 변화 추진 경과 공유, 포럼의 명과 암 나누기, 협치의제사업 종료
- 11월 8일 서울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2019

- 7월 1일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의 시작

지역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방학천거리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협력의 시작

공감하기

방학천 문제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요?

준비하기

방학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준비가 되었나요?



방학천 문제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요?

툘아보기

방학천은 방학동 도봉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입니다.

방학천은 공장 폐수로 수질이 좋지 않았고, 버스나 택시의 차고지가 있어 공기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에 환경 이슈가 많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태환경 활동가들이 구청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천연가스 버스로의 전환, 버스 차고지 이전 등의 변화를 이뤘습니다.

시민사회활동가 주도로 지역 내 생태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창동에 골프장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 쌍문근린공원을 만들고, 잣은 하천범람으로 위험한 방학천 판자촌을 발바닥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방학천에 있는 600년된 은행나무를 아파트 건설 위기로부터 지켜낸 것도 시민사회네트워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했고 방학천도 지역에서 이슈가 많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천의 잣은 범람으로 하천 개보수 요구, 방학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와 주택가에 부적절한 유해업소 단속 요청이 계속 되는 곳으로 방학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방학천 사례에서는 주민이 먼저 문제를 발견하여 협력이 시작되었지만 꼭 주민이 문제를 발견해야만 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이 문제를 발견하여 협력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공감대가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충분히 형성되었느냐 라고 보아요.

확인해봅시다

001 방학천 주변 문제 해결 사례 중 잘못 짚지어진 것은?

- ① 공기의 질 문제 - 천연가스버스 전환, 버스 차고지 이전
- ② 골프장 건설 위기 - 쌍문근린공원 조성
- ③ 잦은 하천범람 - 발바닥공원 조성
- ④ 아파트 건설 위기 - 방학천 재개발

002 방학천에서 일어난 일 중 연관된 것끼리 선으로 이어봅시다.

- | | | | |
|-----------------|---|---|------------------|
| 방학천 하천이 자주 범람하니 | • | • |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
| 아이들의 통학로로 부적절하니 | • | • | 유해업소를 단속해야 합니다 |
| 방학천의 변화를 위해서는 | • | • | 하천의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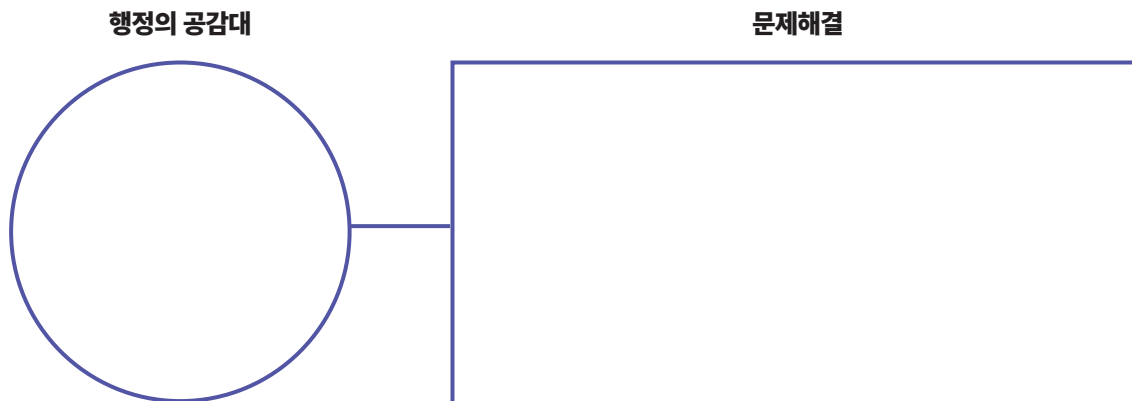
001) ④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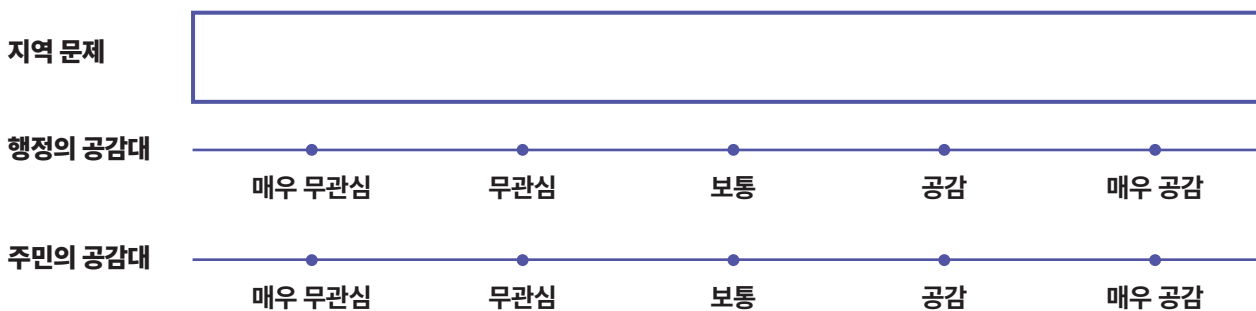


생각해봅시다

001 행정 혹은 주민의 공감대를 시작으로 해결한 지역 사례가 있나요?



002 우리의 지역문제는 행정과 주민의 어느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나요?





방학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

통아보기

방학천 문제 해결에는 구청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방학천 유해업소 문제는 주민의 민원과 함께 구청에서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유해업소 폐업과 거리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의지로 구청은 보건위생과 내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행정 내 주민참여형사업과 협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과의 경우 4~5년 정책을 실행해오면서 ‘선-협의 후-실행’의 주민참여적 사업 추진 방식을 몸소 익혔고, 주민활동가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주민대표와 시민활동가, 공무원들의 느슨한 일상적 관계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회적경제 사업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주민대표와 지역 시민활동가,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나누면서 지역사회의 정보를 공유하는 느슨한 관계망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협치 추진을 위해 도봉구협치회의, 협치사무국,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협치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과 속의 공론 프로세스, 전부서 협치조정관 협조결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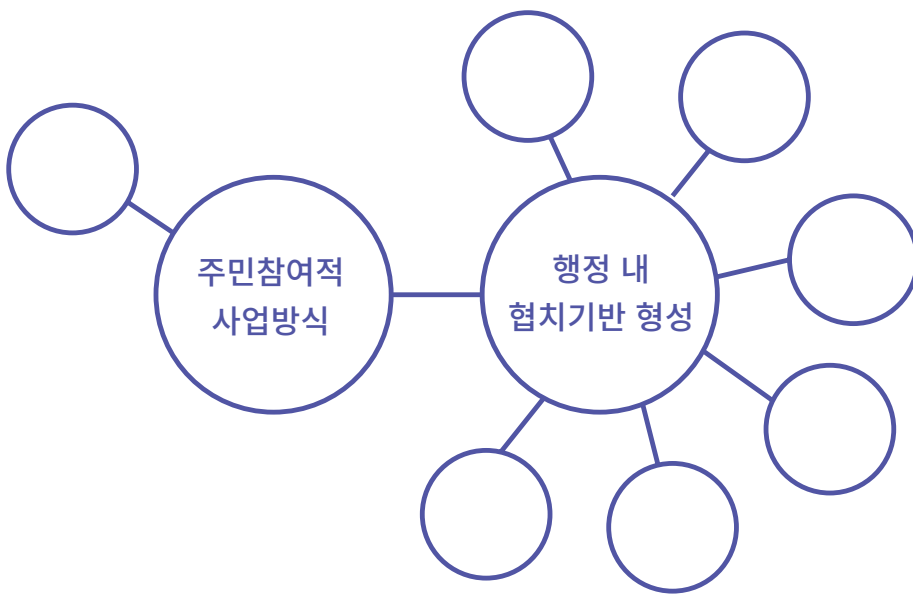
협력의 시작이 문제에 대한 행정과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할까요? 방학천의 사례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 내에 협치제도와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과 주민간의 일상적인 관계와 신뢰가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확인해봅시다

001 도봉구청의 방학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던 사례는 무엇인가요?

- ① 방학천 유해업소 단속 현수막 게시
- ② 방학천 유해업소 해결방안 공모
- ③ 보건위생과 내 특별팀 신설
- ④ 도봉구 지역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002 도봉구 협력 기반 구성에 관한 관계도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보기

- ① 선-협의 후-실행
- ② 주민공론장과 숙의공론프로세스
- ③ 도봉구협치회의
- ④ 협치지원관
- ⑤ 전부서 협치조정관 협조결재시스템
- ⑥ 협치조정관
- ⑦ 협치사무국

001) ③

002) 주민참여적 사업방식_①
행정 내 협치기반 형성_②③④⑤⑥⑦

생각해봅시다

001 우리 지역에서 행정과 주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매우 친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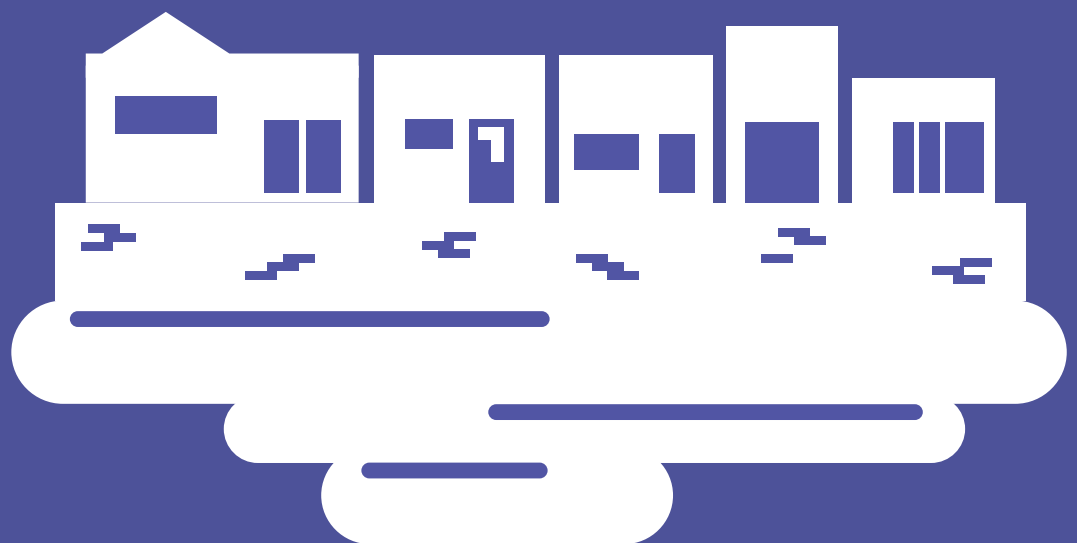
친밀

보통

소원

매우 소원

002 우리 지역에서 행정과 민간의 관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협력의 과정

민과 관의
하나된 힘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다

협력의 과정

함께 일하기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나요?

함께 결정하기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였나요?

함께 이룬 작은 결실

협력의 동기부여가 될
과정에서의 작은 성과가 있나요?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나요?

툰아보기

협치의제 선정 이전에도 구청 각각의 부서들과 주민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단속전담팀을 만들어 유해업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단속 중심에서 상담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업주들의 생활문제를 상담하면서 세 곳의 자진폐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와 지역주민모임은 방학천 유해업소 문제 해결과 별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보건위생과의 유해업소 단속으로 폐업한 공실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자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폐업한 공간을 리모델링한 ‘방학생활’은 주민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주민 자치의 공간으로 만들수 있었습니다.

구의회의 반대는 민관협치를 통해 돌파하면서 민과 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유흥업소 폐업 공간에 유능한 작가를 유치하기 위해 6개월 월세 지원 계획을 세웠으나 이에 반대하는 구의회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협치예산으로 방향을 모색하였고 지역사회에 이슈화하여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협치의제 선정 이후는 협치체계 속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방학천 과제가 2017년부터 협치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민사회활동가, 주민대표자, 중간지원조직,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참여구조를 통해 논의되고 협의, 조정되는 협치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협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해요.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속의공론장(방학천 사례에서는 ‘협치방학천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인해봅시다

001 올바른 상호작용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 보건위생과 유해업소 상담 •
- 마을공동체과 주민공간 조성 •
- 작가 유치를 위한 월세 지원 정책 •
- 방학천 과제가 협치 사업으로 추진 •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치 효능감 체감
- 자진폐업과 공간 변화 모색
- 협치 예산 편성 방향 모색과 지역 이슈화
- 방학생활 조성과 주민자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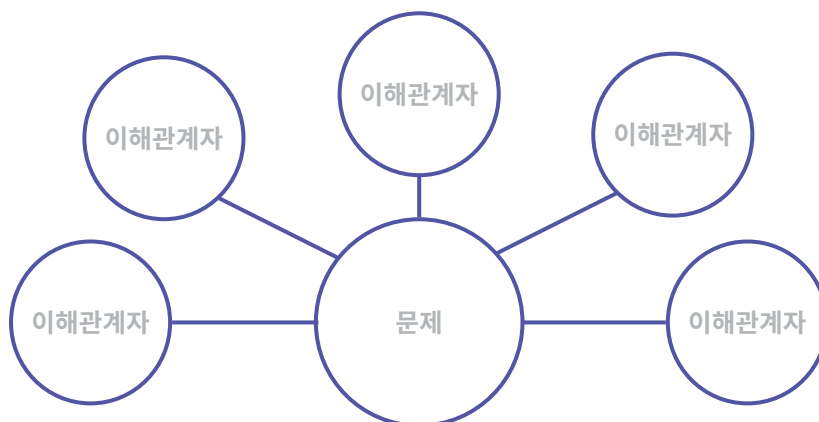
002 다음 중 상호의존적이면 O표를, 상호의존적이지 않으면 X표를 해봅시다

보건위생과 — 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과 — 마을활동가	
구의회 — 방학천 작가	
시민사회활동가 — 주민대표자 — 중간지원조직 — 관련 부서	

001) ~~XXXX~~ 002) O/O/X/O

생각해봅시다

001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요?



002 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관계자1		이해관계자2		과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였나요?

툴아보기

방학천 공간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거리로 변화시키자는 목표에 대한 이해는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원주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유흥찻집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함께 생활을 이어가는 지역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지역 주민은 어디까지인가 등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방학천 거리를 변화시켜 지역주민들 누구나 찾고 즐기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적 공간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는 지역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방학생할'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주체들과 마을공동체과는 기존의 원주민(유흥찻집 노동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이 이곳에서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고민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지속가능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거리가 활성화되면 지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원주민들이 내몰리고 획일적인 소비공간으로 변해버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주민과 행정이 함께 결정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보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주민은 행정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결정은 문제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해요. 물론 민간도 속의공론장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자신들이 얻게 된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Key Point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방학천 사례는 협치사무국을 통해 협치포럼과 워킹그룹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Key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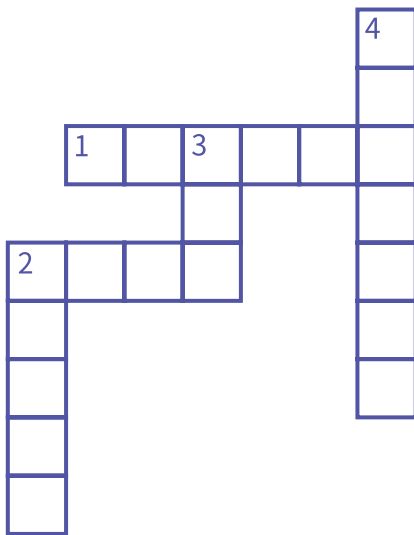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학천 사례에서 민의 경우 다양한 지역주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갈등이 관리되었고 관의 경우 구청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확인해봅시다

001 방학천에 대한 공통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거리
- ② 지가 상승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
- ③ 새로운 주민 유입을 통한 거리의 변화
- ④ 유희창업 노동자들의 다른 공간 이주

002 가로세로 낱말찾기



문제

가로

- 1. 방학천 000000 조성
- 2. 방학천은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고 0000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을이 되고자 한다

세로

- 2. 지역에서의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조화가 가능한 환경
- 3. 예능과 체육을 아울러 이르는 말
- 4.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001) ① 002) 1-문화예술거리 / 2-지속가능,지역생태계 / 3-예체능 / 4-젠트리피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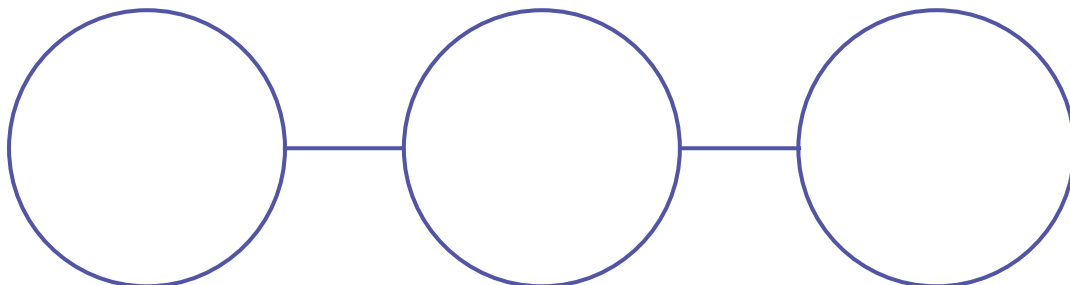
생각해봅시다

001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002 원활한 협치를 위해 민간과 행정의 각각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민간

행정



협치 과정에서의 작은 성과가 있었나요?

툰아보기

단속에서 상담과 설득으로 방향 전환 후 6개월 만에 세 개의 유해업소가 자진 폐업했습니다. 4개월간 강행한 구청의 단속에는 성과가 없었으나, 이후 특별팀을 만들어 방학천 업주와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알아봐주는 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방학천 거리 변화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한 외부 주민의 첫 카페 오픈이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와 지역주민들이 '방학생할'을 운영하면서 거리 변화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 사회에 확산시켰고 이에 공감하는 일반 주민이 '카페기역'이라는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방학생할'의 활동은 마을활력소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방학천 첫 거리 행사에는 지역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입주작가들이 개장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매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협력은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론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갈등도 생기면서 협치 피로도가 쌓여 과거의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럴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초기 과정에서 경험한 협력의 작은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결실은 참여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작은 결실은 어떤 것이었나요?

확인해봅시다

001 방학천 사업의 과정에서 성취한 성과를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써봅시다.

- ① 상담과 설득을 통해 6개월 만에 세 곳이 을 했습니다.
- ② 의 활동을 통해 거리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한 카페 이 오픈했습니다.
- ③ 방학천 첫 에 지역주민들로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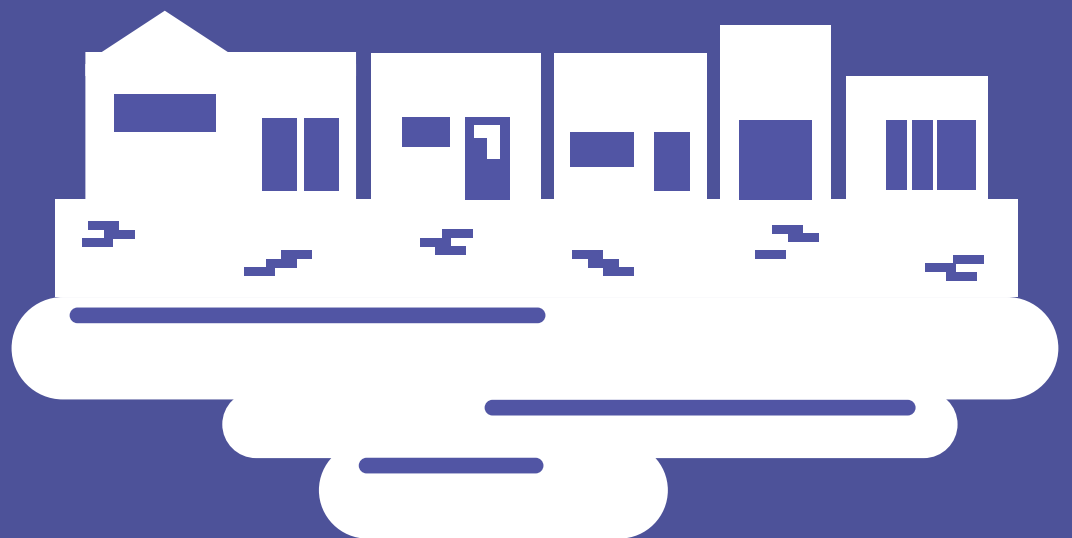
001) 유해업소 자진폐업,
방학생활 카페지역,
거리행사

생각해봅시다

001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성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02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예상해봅시다.

문제	해결방향	과정에서의 작은 성과



협력의 결과

협치의 힘으로
방학천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협력의 결과

함께 만든 변화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좋은 점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나요?

아쉬운 점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Toolkit

방학천 거리가 변했습니다. 유흥업소가 즐비했던 공간에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방과 상점들이 있는 거리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유입으로 거리의 활력과 공공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작가들의 입주가 완료되고 환경정비가 된 이후 플리마켓이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유동인구가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개성있는 가게들로 거리의 다양성도 생겼습니다. 거리의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 주민 모두의 공간이 되고 거리가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생태계와 거리의 자생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내몰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지만 폐지 좁는 어르신, 미용실, 양말 공장 등의 원주민들이 여전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지원하는 공방과는 다른 유입 경로가 생겨났습니다. 개별 상인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있고 상점과 공방들도 단골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요인은 거리 조성 사업을 협치적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였고 특정 주체의 이해와 이익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선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물가나 임대료 상승이 소폭으로 진행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입주작가 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연대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사례의 성과는 성과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치적인 관점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인해봅시다

001 방학천 사례의 성과가 맞으면 O표를 아니면 X표를 하세요.

유흥업소 거리에서 매력적인 공방과 상점의 거리로 변화했다	
입주작가들의 마켓과 축제로 거리의 유동인구가 늘었다	
폐지줍는 어르신, 미용실, 양말공장 등 원주민들이 바로 쫓겨났다	
구에서 지원하는 공방 외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상인들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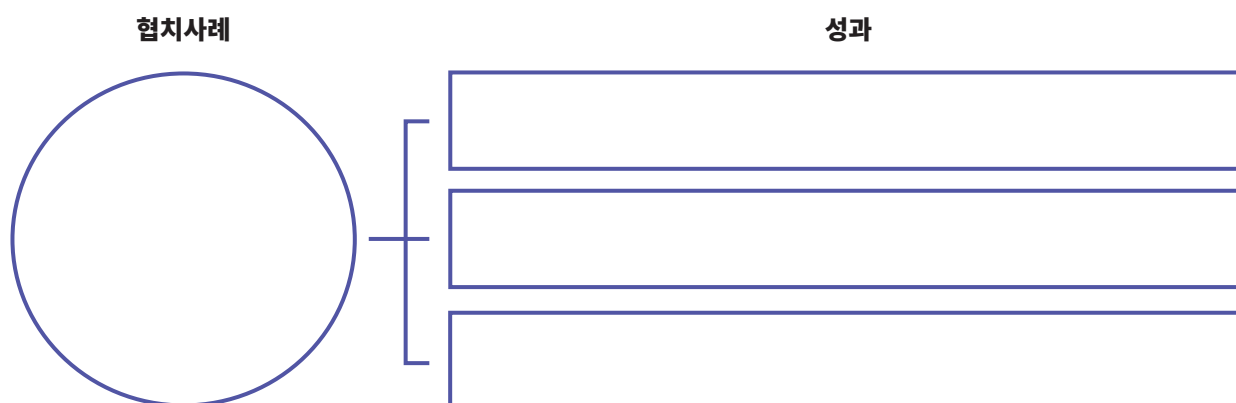
002 방학천 거리의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거리 조성 사업을 으로 풀어감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였고 거리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할 때 특정 주체의 이해와 이익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001) O / O / X / X 002) 협치적 방식, 공동선(또는 공공성)

생각해봅시다

001 우리 지역의 협치 사례에서의 성과를 정리해봅시다.



002 우리 지역의 문제를 협치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민간	행정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참여자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나요?

툴아보기

협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고 거리에 대한 주인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협치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행정과 민간은 협치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효능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성과가 지역 밖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민과 관 모두 자부심과 거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치’하면 방학천을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협치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 중심의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과정에서 협치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리더형 주민활동가들은 사업이 전개되면서 협치 구조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는 주민모임 대표,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채웠습니다. 이러한 주체의 변화는 현재로는 협상력과 권한의 약화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전적 전환은 협치교육이나 구조적 지원이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행정 내에 협치 문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시설 관련 부서들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협치 체계를 경험했습니다. 협치체계와 협치적 추진 방식이 구축되면서 협치가 제도와 문화로 남아 사업 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치 제도와 문화가 행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은 리더십의 일관된 의지와 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방학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협치사업으로 추진이 종료된 이후에도 거리 운영을 협치적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이 협치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행정 내 협치문화가 확산되었고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협치 참여 경험이 확대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해 마련해야 할 토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확인해봅시다

001 사업 결과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 대해 관련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봅시다

- 협치의 대표사례는 •
- 지역 시민사회의 •
- 행정 내의 •
- 협치력 총량 확대
- 협치 문화 확대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002 빈 칸의 알맞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 중심의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를 넓히는 과정에서 협치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협치체계와 ■■■■■■■■이 구축되면서 행정이나 민간이 교체되어도 협치가 제도와 문화로 남아서 사업 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01)



002) 협치 / 참여기회 / 협치적 추진 방식

생각해봅시다

001 협치적 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민간과 행정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민간

행정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있나요?

툊아보기

원주민의 삶을 변화시켜 함께 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원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마을공동체과, 방학생활 주민활동가, 수유화개가 함께 '방학생활'을 거점 공간으로 하여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펼쳤고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유흥업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방학생활의 운영·관리가 마을공동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방학생활을 중심으로 그려왔던 방학천 거리의 마을공동체성, 지역생태계의 공동 목표가 약화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협치 현장에서 어려움 중 하나가 시간에 대한 행정과 민간의 큰 인식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차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행정의 시간과 민간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봅시다

001 글에 나타난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사업 초기 원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내몰리기를 기대했다
- ② '방학생활'을 거점으로 유흥업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고민했다
- ③ 원주민들의 삶의 변화 문제는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 ④ '방학생활'의 운영관리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마을공동체적인 목표가 약화되었다.

001) ①

생각해봅시다

001 우리 지역의 협치 사례에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긴 사례가 있나요?

협치사례

의도치 않은 결과

002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겼을 때 민간과 행정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간

행정



우리동네 협치 어떻게 해볼까요?

방학천 사례의 협력 과정과 순서에 따라 우리 지역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아래 빈칸에 각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 지역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협력의 시작

공감하기

우리 지역 문제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요?

준비하기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준비가
되었나요?

협력의 과정

함께 일하기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나요?

함께 결정하기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였나요?

함께 이룬 작은 결실

협력의 동기부여가 될
과정에서의 작은
성과가 있나요?

협력의 결과

함께 만든 변화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좋은 점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나요?

아쉬운 점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나요?

협치 사례 완벽 이해

협치의 해법





협치 사례 완벽 이해

협치의 해법





협치 사례 완벽 이해

협치의 해법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편

